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9:1: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2026년 6월 14일 (660호)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6/7/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11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3:1-5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어리석도다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6/21/26	6/28/26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위선과 존재전부

철학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선설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반면 기독교는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어떤 답이나 교훈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위대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선이란 단어는 엄청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쉽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사랑의 채찍을 들면서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선이란 무언가를 감추다 숨기다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 순간과 사건을 만나 연기하는 게 들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답도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부자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인간의 위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과연 이런데도 인간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에 또 다시 율법주의를 들고 나와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충돌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2:20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존재 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찬송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패티 크로스비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예수를 만나 이후에도 그녀의 불행한 삶은 계속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릴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인생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은혜에 붙들렸고, 무려 12,000여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시에는 인간의 아무것도 아님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찬송시들로 가득합니다. 그녀가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행동을 맛 보았습니까? 그저 자신의 위선을 주님앞에 고백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